Ⅰ. 序論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했던 점은 衡平性(equity)이었으나, 형평성을 중시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볼 때 經濟停滯, 非效率, 道德的 危害(moral hazard)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왜곡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政府와 民間의 役割調和가 요청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영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이러한 개혁은 社會保障體制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의료보험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7월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7월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이 실현되었고, 1998년 말에 의료보험통합을 골자로 하는 제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재정적자의 누적,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의료니드의 다양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적극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사들은 건강과 관련된 보험을 부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는 종합적인 의료보험상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는 民營補充醫療保險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노령화 사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민영보험이 공적의료보험을 補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는 데 보험회사가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업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사회환경적 측면과 의료보험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선진국의 의료보험 개혁동향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적정한 公私間 役割分擔의 방향을 모색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의료보험 개혁의 방향을 논하고 대안적 의료보험체계의 모델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의료보험개혁 방향에 맞추어 민영의료보험 시장 규모에 대해 전망한다. 제Ⅵ장에서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는다.